

광주 홀로 사는 50·60대 잇따라 숨진 채 발견

고·독·사

1인 가구 시대 슬픈 그림자

‘1인 생활 가구’가 늘면서 광주 지역에서 주위의 무관심 속에 홀로 숨지는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는 전형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광주 4명 중 1명 독거노인
중·장년층 고독사도 늘어
전남도 위험군 780명
사회적 안전망 마련 절실

고독사는 과거 노인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 고독사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맞춤형 사회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노인층의 경우 그나마 돌봄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고독사 등을 예방할 뚜렷한 사회보호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북구 모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김모(52)씨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119에 의해 발견됐다. 옆집에 사는 조모(66)씨가 김씨의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숨진 김씨는 췌장암을 앓고 있으며 15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지내오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6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김모(64)씨는 안방 침대에서 누워 숨져 있었으며, 후배 오모(62)씨가 발견했다.

김씨는 7년 전 중국인 아내와 이혼한 뒤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 경찰서 관계자는 “혼자서 지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대부분 생활고와 함께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홀로 사는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은 4만2000여명이 17만명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4명당 1명꼴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 4만명을 넘어섰지만,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5000여명 수준에 그치면서 고독사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장년층이 고독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4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에서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14년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50세 미만이 187명으로 2013년 117명보다 59.8%나 증가했다.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도에서 지난해 파악한 고독사 위험군 중에서도 중·장년층이 78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3~5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4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자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1921명(위험군 1788명·고위험군 133명)과 중·장년층 780명(위험군 726명·고위험군 24명) 등 고독사 위험군 2701명을 발표했다.

고위험군은 질병·빈곤·비정형거주(임시거주)·단전·단수가구·보험료 체납 등 2~3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고위험군 외에도 고독사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전남도 내 독거노인은 지난해 초 기준 12만2087명으로, 전체노인 39만1837명의 31.2%에 이르고 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는 33만1561가구로 전체 83만3901가구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정승아 조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심리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크며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고 개별화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에서 가족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녀에 게만 노인 부양을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움직여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과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헬조선’ 취업난·신변 비관에...20대 2명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하루 동안 청년 2명이 취업난 등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광주 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모 아파트에서 A(29)씨가 작은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3일 한 전기회사에서 취직했지만, 업무의 특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3년여 동안 전기 관련 공기업 취업에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처지를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남부경찰청에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 “나를 만나 고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긴 카톡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20대 여성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B

(여·24)씨는 지난 4일 밤 1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숨진 B씨를 첫 발견한 친구 C(여·25)씨는 B씨가 2~3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이날 직접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의 아파트에서는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일을 해왔던 B씨는 최근 주변에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이한열 열사 서거 30주기 추모예배

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록체가 된 이한열 열사 서거 30주년을 기리는 추모예배가 5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이 열사 서거 30주기를 기렸다. 이한열기념사업회,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 광주 진흥고 총동문회가 주최한 추모예배에서는 기도도와 찬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석자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록체가 된 이한열 열사 서거 30주년을 기리는 추모예배가 5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이 열사 서거 30주기를 기렸다. 이한열기념사업회,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 광주 진흥고 총동문회가 주최한 추모예배에서는 기도도와 찬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석자 발언 등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5·18 북한 배후설’ 주장 지만원씨 재판 광주서 열린다

출판물 발행 금지 가져분 소송

지씨 측 재판부 이송 신청 철회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75)씨의 출판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5월 단체와 유가족의 가져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광주에서 이뤄진다.

지씨의 대리인은 5일 오전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8 관련 화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져분 소송에서 재판부 이송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화보는 지씨가 만든 책이다.

지씨의 발행물에 대한 손해배상(본안) 소송이 이미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어서 지씨 측이 이송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씨는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씨의 발행물물 명에가 훼손됐으며 최근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씨는 자신이 발간한 화보집 등에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폭동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고, 자신이 운영하

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5·18 배후에 북한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해 5월 단체·유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져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 2명은 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의료재단 이사장이 요양급여 97억 ‘꿀꺽’

접대 받고 묵인 심평원 직원도 구속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과 비리 사실을 묵인해 주고 접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비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B(54)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

호중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구속됐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550회에 달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품 접대를 받고 광주의 모 요양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예비부부 나란히 철창행 까닭은



○...조건만큼을 미끼로 돈을 받아 쟁기는 사기단의 일원으로 현금 전달책을 맡았던 예비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나란히 철창행.

○...5일 부산 해운대경찰청에 따르면 A(여·34)씨와 동기남 B(30)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원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남성 700여 명이 입금한 9억4000만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워싱턴에 전담한 혐의로 구속.

○...경찰 조사 결과 양가 부모 상권례를 마치고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쟁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남성 중 37명(피해액 3억여원)만 경찰조사에 응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예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div style="text-align: center;"> <p>풍암동 중심상가</p> <p>일반물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치평동 중심상가</p> <p>일반물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안동 주상복합상가</p> <p>전남대정문인근 (1층,2칸)</p> <p>일반물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법원 경매/공매】</p> </div>								
<p>대지 400평 건물 100평</p> <p>매매가 17억</p>	<p>토지 191평 건물 770평</p> <p>매매가 53억</p>	<p>건물 32평</p> <p>매매가 3억5천 (용자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토지</th> <th style="width: 50%;">공장</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지역 도로점 소촌제인근 토지 192평 감평가 121,000,000 최저가 121,000,000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신234 토지 11,970평 감평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평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콘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평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지역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북구 지아동 지산초등학교인근 토지 678 건물 222평 감평가 1,057,000,000 최저가 1,057,000,000 ▶나주 다시면 월래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평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td>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반물건</th> </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td> </tr> </tbody> </table>	토지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지역 도로점 소촌제인근 토지 192평 감평가 121,000,000 최저가 121,000,000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신234 토지 11,970평 감평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평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콘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평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지역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북구 지아동 지산초등학교인근 토지 678 건물 222평 감평가 1,057,000,000 최저가 1,057,000,000 ▶나주 다시면 월래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평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일반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토지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지역 도로점 소촌제인근 토지 192평 감평가 121,000,000 최저가 121,000,000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신234 토지 11,970평 감평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평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콘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평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지역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북구 지아동 지산초등학교인근 토지 678 건물 222평 감평가 1,057,000,000 최저가 1,057,000,000 ▶나주 다시면 월래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평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일반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